

12. 모든 소유를 나누는 게 지금도 가능한가요? / 김종윤 목사

| 본문 | 사도행전 2:42-47 | 주제/사건 | 초대교회의 물건의 통용 / 물질 |
|------|--|-------|-------------------|
| 문제제기 | <p>▶ 초대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방금 읽은 본문의 모습) 예시.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교회의 그릇된 모습의 몇 가지 예 - 헌금 횡령, 유용 / 집단 이기주의, 갈라지고 분열하는 교회 등 - 그러하기에 목회자라면, 늘 꿈꾸는 교회의 모습, 때로는 '기준'이 되기도...</p> <p>▶ 그러나! 과연 이 구절의 '이상'이 '현실'이 될 수 있겠는가? ▶ 특별히 자신의 재정과 소유를 다 나누었다는 부분(행2:44-45, 5:32) 오늘날의 현실에 이 '성경 구절'대로 사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 이런 모습은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모습은 혹시 아닌가?</p> <p><문제제기> 목사님! 궁금합니다. 이제 이 구절이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상적인 것'일 뿐인가요?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p> | | |
| 설교 | <p>- 이 일은 사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임박한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p> <p>-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정신'은 계속 이어져 왔다. 교회사 속) 교회의 재정 헌신, 재정을 통한 긍휼 사역의 사례들</p> <p>- 우리의 헌금, 십일조 '교회 공동체'를 통해 아름답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행 2:45, 5:35) 흘러가고 있다.</p> <p>- 우리교회 '재정 지출 비율'에 대한 보고</p> <p>+ "한 개인"으로서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서의 건강한 재정 윤리와 재정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아래와 같은 '재정 원칙들'로 실천해 볼 수 있다.</p> <p>- 1차적) 십일조 등을 통한 교회 헌금 생활 : ex. '한셈치고'와 같은 프로젝트</p> <p>- 2차적) 나아가 십의 십조를 드리는 삶 "지갑의 성화" - 나의 모든 재정 사용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되기 - 내 '카드 내역서'를 주님이 보실 때, 흐뭇해하실 수 있는 사람 되기</p> <p>+ 참조. 마태복음 6:19-34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p> | | |

나누지 않았더라면...

사도행전 2장 42-47절.

-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 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힘 쓰니라’ 라는 말은 ‘의지적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교회가 꿈꾸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란 것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상적인 하나님나라를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만일 초대교회 교인들이 본문에 나타나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47절에 근거하면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7절의 말씀이 42-46절과 같은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들이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들의 공동체에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사라지고 있는가?

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 못하는가?

왜 교회에 더 이상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가?

지금 교회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본문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과연 이런 공동체가 가능한가?’

대답은 yes or no!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가운데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no’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의지적 결단’이 일어난다면 ‘yes’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세요.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힘쓰니라’ 라는 부분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오류 가운데 하나는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힘쓰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생활과 공동식사와 기도에서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

NIV 성경에는 ‘devote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신했다’는 말이지요.

적어도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은 자신들의 삶을 드려 헌신하는 모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42절은 또한 우리들이 말하는 교회의 이상적인 사역이기도 합니다.

가르침, 봉사, 교제, 기도와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삶을 드려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은혜의 생활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은 ‘의지적 결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택’ 혹은 ‘결단’이라는 말은 분명히 의지적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선택한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단’ 한다는 말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잘라낸다는 것이기도 하니, 여기에는 헌신과 노력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임할 때,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 |
|------------------|
| 이들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
|------------------|

마틴 로이드 존스는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 책이 교회란 무엇이고 기독교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권위 있는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우리들 모두에게,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에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 일 것 같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당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해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예 힘쓸 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43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성경에는 ‘everyone’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는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이라는 말은 ‘경외심’으로 나타나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교회 주변에서 교회가 하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움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할 때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세상이 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니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무엇입니다.

44-46절 말씀을 보세요.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다 아주 중요한 단어 혹은 의미가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이 본문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구절인데,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이죠.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이 말들의 의미하는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모든 단어들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개인주의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가요? 기독교의 본질, 신앙의 공동체는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 나라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했던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것을 먼저 챙겨야 안심이 되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20년 3월은 한국 사회에도 참 힘든 때였지만, 교회에도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를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교회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주일 성수’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가 아무리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비난과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자기들을 위해서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이죠. 교회는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역병의 전달자처럼 인식된 것입니다.”

그 일이 저로 하여금 ‘교회론’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예배’를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닌데, 우리는 건물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왜 이리 힘들어 했을까?

교회는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왜 신뢰하지 못하고, 다 같이 모여야만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배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섬김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예배의 형식과 시간에 매여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제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각을 세웠던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열여덟 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옛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14절)

예수님의 대답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꼴고 가서 뭇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열더덥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 (15-16절)

제가 틀릴 수도 있겠쵸.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코로나가 창궐하던 현장에 계셨다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지금 너희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합당한 일이겠느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놓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기 시작했을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45절 말씀.**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자기가 나누고 싶은 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 자신을 향해 있던 시선을 보지 못했던 곳을 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느끼던 아픔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임재의 가장 명확한 표징은 ‘서로’를 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장 ‘예수님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갑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의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때는, 주님과 멀어질 때입니다.

2020년 나온 스캇 솔즈 [선 밖의 예수]에 아주 멋진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가난해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지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

‘나눔’은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나눔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4장 18-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어떤 공적 인물이 취임 연설을 할 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예수님의 ‘취임 연설문’ 같은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취임 연서를 하고 난 후 사역을 시작할 때, 대척점에 섰던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병자와 가난한 자, 사회 변방에 있는 자들에게 손을 뻗는 수고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우리’ 그리고 ‘서로’라는 것은 자신들과 동일한 생각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며 세상은 두려움도 경외심도 가지지 않았습니

다.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 성령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초대 공동체 사람들의 관점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며 하찮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신의 유익을 생각했을 때는 어떤 변화도 영향력도 존재하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공동체를 보게 하였고, 세상을 보게하셨습니다. 단순히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가 눈에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다른 ‘나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전에는 ‘내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베푼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신이 소유한 것들이 ‘주님의 것’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자신의 소유가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이 생긴 것이죠. 또한 자신의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내 맘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물질과 똑 같은 나눔인데 이전과는 달리 세상을 두렵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나눔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자랑, 위안, 칭찬, 명성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얻으려하면 사람들의 진정한 아픔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나눔을 통해 그것을 받는 사람이 얻을 기쁨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기대하고 보기 시작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나눔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본문 47절.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스캇 솔즈의 [선박에 선 예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살 때 하루는 나의 일을 골똘히 생각하며 브로드웨이를 걷던 중 한 빵집에 있던 여인이 내게 먹을 것을 사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사는 노숙자로 자주 보던 얼굴이었다. 그녀는 예수님처럼 머리를 누일 곳이 없었다. 그녀를 돕고 싶었던 나는 베이글 하나와 커피 한 잔을 사 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커피는 좋지만 베이글 보다는 달걀 샐러드가 좋다고 말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얼마든지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지 않았다. 솔직히 그 요구가 썩 기분이 좋지 않았다. 가던 길을 멈추면서까지 도와주는 사람에게 까다롭게 구는 것이 너무하게 느껴졌다.

‘내가 뭘 주던 감사히 먹을 것이지!’ 게다가 베이글은 57센트지만 달걀 샐러드는 6달러였다.

그날 그 여인에게 커피와 달걀 샐러드를 사 줄 때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녀의 요청에 짜증이 난 나는 그녀에게 빈정거리는 상상을 했다.

‘아예 캐비아를 사 들릴까요?’

악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내가 커피와 달걀 샐러드를 건네자 여성은 달걀 샐러드를 요청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와 잇몸이 상해서 베이글처럼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밖에 먹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록 그 사정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냉담하고 비판적으로 굴었던 것이 하나님께 너무도 죄송했다. 내가 그 예날 예수님을 벼랑 아래로 밀어 버리려고 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은 그 여성이 아니라 나였는지도 모른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특권층의 삶이 어떤 것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좀처럼 공감하지 못한다.

“안타까운 상황은 대개 안타까운 선택을 낳는다.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예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 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신다. 나누어 줄 때 받는 자와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달걀 샐러드를 원한 그 여성을 만난 덕분에 내 인생이 크게 바뀌었다. 그 짧은 대화를 통해 내 이와 잇몸은 멀쩡하지만 내 안에 망가지고 상한 구석이 많아서 주님의 떡이라는 값비싼 부드러운 음식과 주님의 잔에 담긴 값비싼 보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다.

교회에 구원이 임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부흥’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에 3천명 그리고 5천명이 회개하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단순히 숫자가 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불어난 일이 교회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보겠습니다.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표징입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가정을 해 보았습니다. 만일 초대교회가 ‘나누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나눔’이라는 것이 유일한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에 필요한 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 ‘나눔’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셨던 것이죠.

성령께서는 초대교회에서 ‘나눔’을 도구로 사용해서서 구원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세속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물질 만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초대교회에서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하등 이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물질의 사용은 우리 삶의 전인적인 변화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그 사람이 쓰는 돈의 용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진정한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오해하는 대중적인 시각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요약해 보았습니다.

1. 단순히 지적인 영역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을 알고 가르치고 숙고하는 것이 의무라고 믿는 사람들로, 기독교를 연구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지적 취미’정도를 생각하며 때로는 논쟁을 즐기기도 하는 사람들.

2.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평안이나 사랑이나 행복같은 감정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별로 공부하거나 연구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3. 의지를 전적으로 강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살아가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인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기독교인의 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욕망은 정치적인 영역이나 사회봉사의 영역으로 표출 될 수도 있습니다.

4.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난 사람들이 취하는 견해로, 신앙을 마지못해 하는 의무 혹은 두려움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정적인 것, 금지하며 제한하는 것, 무엇보다도 의무감으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진정한 기독교의 표식은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 하는가’에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생명과 능력과 자기 포기로 충만합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중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봅니다. 이 둘의 차이는 ‘구원받다’라는 말에 근거합니다.

‘나눔’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통해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눔’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벽’을 허물고 ‘서로’되게 하신 역사가운데 나타난 구원사역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2장13-14절을 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체험하고 난 후에 이런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

‘임박한 종말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리라 믿었기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그리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도구 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생각이 그들이 사는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동안 교회 역사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왔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이단들의 형태가 ‘임박한 종말’을 선포하고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처럼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함께 모여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재산과 공동체가 자기들 만을 위한 것이었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 했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종말 사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는 가장 절실한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나’ 우리고 ‘우리 공동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마 오늘 말씀이 세상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에게도 참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말인가?

만일 우리의 재산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우리’를 위해 사용되고 축적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헌금의 이유와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물질은 그저 돈과 욕심 덩어리일 뿐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돈이 많다고 놀라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지금은 교회가 돈으로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 해 코로나 19 사태로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들이 모아졌습니다. 교회도 헌금을 모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기업이 300억을 내 놓고, 신천지가 200억 넘는 돈으로 돕겠다고 하고, 연예인들이 내 놓는 액수들이 교회가 비교할 수 없는 돈들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자원과 비교하면 교회가 돕겠다고 내 놓는 헌금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단순히 돈을 가지고 누구를 돕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구원사역을 이루는 일입니다.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일인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라 바라고,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십일조’를 조롱합니다. 교회가 돈을 바라고 모은다는 것입니다.

십일조는 하나님 앞에 내 제정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 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셈치고와 감사헌금을 하는 이유는 이런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꿈꿨던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기준이기는 하지만 이상적인 교회 재정 지출 비율을 이루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올바른 돈의 사용과 흐름이 그 교회와 단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누지 않았더라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님께 쓰임 받지 못했을 것이며,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나눔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셨다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일이 아닐까요?